

## 한·캐나다 FTA의 현황과 경제적 의미

**오수현**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shoh@kiep.go.kr, Tel: 3460-1150)

**김영귀**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장 (ygkim@kiep.go.kr, Tel: 3460-1188)

**금혜윤**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Tel: 3460-1205)

**이준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연구원 (jwlee2@kiep.go.kr, Tel: 3460-1088)

## 차 례 ●●●

1. 한·캐나다 FTA 협상 현황과 주요 쟁점사항
2.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의미

## 주요 내용 ●●●

- ▶ 한·캐나다 FTA는 2005년 첫 협상 이후 2008년까지 13차례 공식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자동차 및 농축산물 분야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여 현재까지 협상 중단상태로 남아 있음.
- ▶ 교착상태에 있는 한·캐나다 FTA 협상 재추진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을 분석함.
  - ① 협상 개시 당시의 의의를 재점검, ② CGE 모형을 통해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 ③ 협상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살펴봄.
  -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캐나다의 중요성은 비교적 낮아졌으나, 한국과 캐나다의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고려할 때 한·캐나다 FTA로 인한 교역 및 투자의 추가적인 확대가 기대됨.
  - 한·캐나다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2% 추가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3.5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캐나다가 EU,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무역전환효과는 약 0.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1. 한·캐나다 FTA의 협상 현황과 주요 쟁점사항

## 가. 협상 현황

-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첫 협상 이후 2008년 3월까지 13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캐나다의 WTO 제소로 잠정 중단됨.
-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캐나다 양측은 자동차 관세 철폐, 농산물 및 축산물 시장개방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였음.
- 2009년 4월 캐나다 측의 쇠고기 관련 WTO 제소로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음.
  - 한국은 지난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2009년 캐나다는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였음.
- 2011년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2013년 1월에야 비공식 회의로 협상이 재개되었음.
- 2011년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됨.
- 협상 재개를 위해 2012년 7월 밴쿠버에서 현황 점검(Stock-taking) 회의를 실시하고, 2013년 1월 밴쿠버에서 한·캐나다 FTA 협상 비공식 회의를 개최함.

## 나. 주요 쟁점

- [자동차] 세단형 승용차에 대해 한국 측은 단기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캐나다 측은 중장기 철폐를 제안함.
- 캐나다는 경제 불황으로 타격을 받은 자동차업계가 천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6.1%의 관세가 철폐되면, 캐나다 내 자동차 생산이 위축될 것이라는 자동차산업노조(CAW)와 자동차제조협회(CVMA)의 입장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sup>1)</sup>
- [농축산물]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해 캐나다는 한·미 FTA 수준의 양허를, 한국은 그보다 장기의 관세철폐를 주장함.
- 2012년 캐나다산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되면서 캐나다 측은 2003년 수준<sup>2)</sup>의 쇠고기 수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율 감축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됨.

1) 『오토타임즈』(2013. 2. 6), 「캐나다, 한국과 FTA 협상 시 자동차업계 이해 반영」.

2) 2003년 캐나다의 대(對)한국 쇠고기 수출규모는 약 3,100만 달러임(한국무역협회).

- 캐나다산 돼지고기(HS code 0203), 곡물류(HS code 10), 유채유·겨자유(HS code 1514), 카놀라 등의 대한국 수출액이 급감함에 따라 한국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 \* 대한민국 캐나다산 곡물 수출은 2012년 9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58.3% 감소, 돼지고기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4.7% 감소, 유채유, 겨자유 수출은 77.7% 감소함.
- 한·미 FTA 발효 이후 캐나다산 농산물 및 축산물의 대한국 수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캐나다 측은 한·미 FTA 수준의 양허를, 한국 측은 그보다 장기의 관세철폐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산 쇠고기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37.5~40%, 돼지고기 관세율은 22.5%임.
- 한·미 FTA 발효로 캐나다산 쇠고기, 돼지고기(삼겹살)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캐나다 측은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요구함.
- 콩, 천연꿀, 맥주보리, 근채류(사료용) 품목에 대해 캐나다 측에서 높은 수준의 TRQ 설정을 요구함.<sup>3)</sup>

■ 한편 한·캐나다 FTA 협상 개시 후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 잠정 합의하였던 양허안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임.

## 2.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의미

■ 본 절에서는 한·캐나다 FTA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협상 개시 당시의 의의를 재점검하고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협상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살펴봄.

### 가. 협상 개시 당시 의의 재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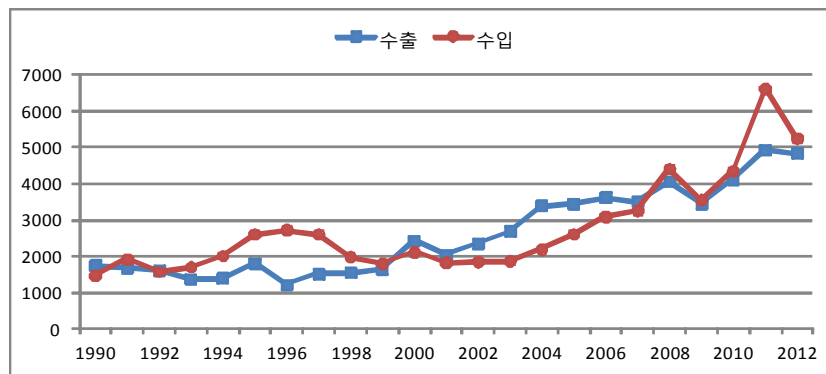
- 2005년 당시 한국은 캐나다와의 FTA를 통해 NAFTA 시장과 북남미 대륙을 포괄하는 FTAA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중요성은 낮아졌음.
-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캐나다의 중요성은 전에 비해 낮아졌으나, NAFTA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캐나다의 GDP 규모는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이며, 지난 10년간 G-7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고려한다면, 북미 지역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농민신문([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07970](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07970)).

- 당시 한국의 제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첨단기술 등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캐나다와의 무역보완관계는 지속적으로 견고해지는 추세임.
  - 캐나다는 여전히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미개발 지역도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측면의 의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 양측의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바, 한·캐나다 FTA는 양국의 비교우위 품목 간 교역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됨.
    - 2012년 기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수입은 석탄·목재·광물 등 천연자원에 편중되어 있음.
    - 다만 협상 중단 이후 수년이 지났으므로 세부 품목별 비교우위에 기반한 양허안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캐나다와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FTA가 양국간 교역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양국 관세구조를 감안하면 대캐나다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 약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한·캐나다 간 교역은 2005년 당시 약 60억 달러 수준에서 2012년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1.4배, 수입은 2.0배 증가함.

그림 1. 한국과 캐나다 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한국은 캐나다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2007년까지는 흑자를 달성하였고, 2008년부터 다시 상황이 역전되어 2011년에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하락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 관세율이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구조와 무역수지 적자구조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다소 약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 한·캐나다 FTA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자차원의 폭넓은 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됨.
  - 캐나다와의 FTA를 통해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

며, 특히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산업 분야의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서비스와 투자 개방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FTA가 타결되면 향후 지역경제통합 논의과정에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공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캐나다의 기체결 협정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FTA에서 서비스와 투자 자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유화를 추진해 왔음.
  - 한·캐나다 FTA가 타결될 경우 지역통합 논의과정에서 개방대상 확대와 수준 향상에 공조할 여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나. 경제적 효과 추정

- 한·캐나다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2% 추가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3.5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여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살펴봄.
  - CGE 모형 중 최근 가장 널리 쓰이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표준모형과 가장 최신인 GTAP DB Version 8을 이용하여 FTA별 관세철폐로 인한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함.
  - GTAP 모형은 한·미 FTA,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모형이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7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자료임.
-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양국간 관세가 100% 철폐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으며, 장기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자본축적 모형을 활용함.
  - 완전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라는 점에서 해석상 주의가 요구되며, 서비스 및 투자 개방, 경제협력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FTA 체결로 인한 관세감축이 대캐나다 무역수지에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으나, 양국간 무역보완관계로 인한 대세계 경쟁력 확보 등으로 거시경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표 1. 한·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100% 관세철폐)

| FTA 상대국 | 실질 GDP(%) | 소비자 후생(억 달러) |
|---------|-----------|--------------|
| 캐나다     | 0.032     | 3.58         |

자료: 저자 추정.

## 다. 협상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는 NAFTA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EFTA,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과의 FTA를 발효 중이며, 파나마와는 정식서명을 마친 상태이고, CA4의 회원국인 온두라스와 개별 FTA를 타결하였음.<sup>4)</sup>
-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현재 EU,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터키, MERCOSUR, 태국과는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협의를 이어가고 있음.<sup>5)</sup>
- 캐나다는 NAFTA 이후 최대 경제규모인 EU와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F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를 추진 중에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여 수출경로 다변화를 모색 중임.

표 2. 캐나다의 FTA 추진 현황

| 구분  | 발효                                                                                                                          | 타결                                          | 협상진행                                                                                                                                                                                                                                                                         | 여건조성                                                              |
|-----|-----------------------------------------------------------------------------------------------------------------------------|---------------------------------------------|------------------------------------------------------------------------------------------------------------------------------------------------------------------------------------------------------------------------------------------------------------------------------|-------------------------------------------------------------------|
| 캐나다 | NAFTA(1994.1)<br>이스라엘(1997.1)<br>칠레(1997.7)<br>코스타리카(2002.11)<br>EFTA(2009.7)<br>페루(2009.8)<br>콜롬비아(2011.8)<br>요르단(2012.10) | 파나마(2010.5<br>정식서명)<br>온두라스(2011.8<br>협상타결) | 싱가포르(2007.8, 8차 협상)<br>도미니카공화국(2007.12, 협상개시)<br>한국(2008.3, 13차 협상)<br>CA4(2010.3, 12차 협상)<br>CARICOM(2012.7, 4차 협상)<br>EU(2011.10, 9차 협상)<br>일본(2012.3, 협상개시)<br>모로코(2012.6, 3차 협상)<br>우크라이나(2012.9, 5차 협상)<br>인도(2013.1, 7차 협상 예정)<br>TPP(2012.12, 15차 협상)<br>※ FTAA 협상 중단 | 터키(2010.2, 예비협의)<br>MERCOSUR(2011.6,<br>예비협의)<br>태국(2012.3, 예비협의) |

자료: 저자 정리.

- 캐나다가 EU, 일본과의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무역전환효과는 약 0.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본 분석에서는 2011년 기준 HS코드 6단위 품목별 수출입자료에 기반을 두어 캐나다의 FTA 시나리오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sup>6)</sup>
  - 여기에서는 World Bank에서 운영하는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의 자료와 SMART 모형을 이용해 상대국들이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과 추진하는 FTA 체결로 인한 우리나라의 무역전환효과를 살펴봄.<sup>7)</sup>
  - 무역전환효과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가 하락하는 경우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품목을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발생하는 효과를 지칭함.

4)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이며, CA4(Central America 4)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임.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으로 구성된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주자유무역지대)는 1994년 협상 개시 이후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CA4 FTA 역시 2010년 제12차 협상 이후 진전이 없어 온두라스와의 양자 FTA만 체결하였음.

5) MERCOSUR(Mercado Comun del Sur) 정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임.

6) UN COMTRADE에 보고된 각국의 수입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7) World Bank는 WIT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UNCTAD, ITC, UNSD, WTO 등 다양한 국제기구로부터 수집된 교역 및 관세, 비관세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SMART 모형은 단일 국가나 지역에서의 관세변화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부분균형모형으로 WITS에서 제공하는 교역, 관세, 가격탄력성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 2011년 현재 캐나다의 대한민국 수입액은 59.6억 달러이며, 캐나다·EU FTA, 캐나다·일본 FTA 체결 시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은 약 0.5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표 3. 캐나다의 FTA 추진에 따른 한국의 무역전환효과

(단위: 천 달러)

| 캐나다 FTA 시나리오     | 캐나다·EU FTA, 캐나다·일본 FTA |
|------------------|------------------------|
| 대캐나다 수출액 (2011년) | 5,955,930              |
| 우리나라의 무역전환효과     | -54,961.9              |

주: 여기에서 대캐나다 수출액은 캐나다의 대한민국 수입액을 의미함.  
자료: WITS(World Bank) 자료와 저자 추정.

- 협상의 지연으로 FTA를 통한 기대이익의 실현이 늦춰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제3국과의 FTA 발효로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악화 가능성이 있음.

- FTA 협상 쟁점 중 관세철폐 기간 단축과 관련된 입장 차이는 FTA 추진이 늦어질수록 무의미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캐나다와 제3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상대적 가격경쟁력 악화로 인한 시장점유율 하락이 예상됨. KIEP